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60년(서기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제125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06329)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 봉행

5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

오는 5월 14일(토)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오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금강선원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합니다. 봉축 당일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오전 10시 30분 봉축법요식과 오후 7시 점등법회를 봉행합니다. 법요식에서는 예불과 육법공양 그리고 관불의식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연등회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불자들이 장엄등과 행렬등을 만드는 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

된 연등회는 1300여 년 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한국불교의 고유문화로, 해마다 30여 만 명의 내외국인이 동참하는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국의 사찰에서 각양각색의 연등을 가지고 참가하는 연등행렬은 동국대에서 출발하여 조계사까지 이어지는데, 독특하고 다양한 연등이 빛내는 빛의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아울러 금강선원에서는 5월 10일(화)부터 3일 동안 『화엄경 약찬』을 교재로 부처님 오신 날 특강을 진행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상의 공양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

아들이고 부처님 법대로 살고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되고자 발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단지 부처님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불성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더 없이 기쁜 날입니다. 금강선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연등행렬 모임 일정

일시 : 5월 7일(토) 오후 3:30
장소 : 동국대 운동장
복장 : 자유복 또는 법복

왜 연등을 달고 불을 밝힐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전국의 사찰과 거리는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장엄됩니다. 왜 등을 달고 불을 밝힐까요? 등불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캄캄한 밤길을 등불 없이 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마음, 무명에 가려진 마음으로 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진치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밝은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등불 없이 갈 수 없듯이 무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등불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빛입니다. 불교에서 등불은 지혜에 비유됩니다. 절에서는 촛불을 켜고, 일 년 365일 인등을 밝힙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에 불을 밝혀 공양 올리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마음속 무명을 깨우치고 밝은 지혜를 얻고자 발원합니다.

『아사세왕수기』에 연등공양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사세왕이 있었습니다. 인도대륙을 통일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괴로워하다가 죄를 참회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라. 지금 이 순간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허물이 있을지라도 바로 고치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무명을 밝혀주신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궁궐에서 기원정사까지 수많은 등을 밝혔습니다.

『현우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위성에 가난한 여인 난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겨우 밥

헤거스님의 노자 도덕경 강의 - BBS방송

-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04:00, 15:30, 21:00에 방송됩니다.
- ▶ 재방송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5:30에 방송됩니다.

금강경독송 집중정진

- ▶ 일 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밤 7:00~10:00
- ▶ 장 소 : 대법당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큰 원으로 심지 삼고 대자비로 기름 삼은 지혜 광명의 등불을 밝혀 자비와 나눔으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 ❁ 화 엄 등 : 대법당(4층) 10만원
- ❁ 소 원 등 : 기도법당(6층) 5만원
- ❁ 광 명 등(영가등): 소법당(4층) 5만원
- ❁ 법 계 등 : 탄허기념박물관 5만원

-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5-513955
- ▶ 예 금 주 : 금강선원
- ◆ 금강선원 연등은 1년등입니다.



개원 28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시는 혜거 큰스님

지난 4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개원 28주년 기념법회가 있었습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금강선원 연혁(법해 신도회장)발표에 이어 공로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공로상은 봉사가 곧 수행임을 깨닫게 해주신 봉사자들에 대한 개인상(대덕성, 원만심, 금강지, 무등심, 본심행,

정신행, 보리안, 무문행) 시상이 진행되었고, 화엄경 석경불사 발원문 낭독(보리성)에 이어 금강선원 가가합창단의 축하가 있었습니다.

혜거 큰스님께서는 지금의 금강선원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격자이고, 낮은 마음을 갖고 살면 소인배가 되는 것이다. 한가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소견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도량, 전통문화를 살리고 계승하는 도량을 만들도록 원을 가질 것을 당부 하셨습니다. 금강선원 개원 28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해 봉사한 모든 불자들을 축하하며 앞으로 금강선원이 나아 가야할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모으는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춘계순례법회를 다녀 왔습니다



갑사 대웅전앞에서

지난 4월 20일(수) 갑사와 신원사로 춘계순례법회를 다녀왔습니다. 봄 길을 따라 도착한 여전히

봄이었습니다. 대웅전으로 들어가서 예불을 올린 후 갑사 경내를 돌아보며 오랜 세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찰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공양을 한 후 도착한 신원사는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사찰이었습니다. 홀로 드러남이 없이 자연과 조화로운 그곳은 지나는 곳마다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봄이 아니어도 아름다울 사찰들을 보고 느끼며 길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순례법회. 닿는 곳마다 법향이 가득한 고찰들을 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잡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반기 수계식 봉행



이론 강의 후 진행되는 좌선수업 중에서

전통적인 의식 절차에 따라 혜거 큰스님께서 직접 불명과 계송을 지어주시는 금강선원 수계식이 지난 4월 24일(일) 오후 2시 대법당에서 있었습니다. 수계식은 55명의 수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되었고, 혜거 큰스님께서는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계율인 오계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참회와 연비의식에 이어 혜거 큰스님께서 수계자에게 불명과 계송을 수여하는 계접수여식으로 진행된 수계식은 수계자 모

한마음으로 연등을 제작하는 봉사자



연등제작에 정성을 다하는 봉사자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25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금강선원 불자들은 올해도 정성을 다해 연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체 제작하여 연등행렬에 참가하는 금강선원의 연등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지 연잎을 빚어 혜거 큰스님의 글씨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연등을 제작하여 방송매체와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연등회 연등부문에서도 보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혜와 화합이라는 원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금강선원의 연등은 2개의 장엄등과 행렬등으로 나누어 제작되고 있습니다. 장엄등은 혜거 큰스님의 글씨로써 연꽃잎 2만개를 일일이 붙이고 한 글자마다 30여개의 꽃을 만들어 그 안에 전구를 넣고 불을 밝혀 사방으로 자비가 뿜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깨달음 등 우주를 밝히다’와 큰스님께서 쓰신 글씨를 4면에 붙여서 만든 ‘화합의 등’입니다. 또한 행렬등은 평화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의미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등제작 봉사팀(법해회장, 대법화 등)을 중심으로 선등과 봉사단체별로 모든 금강선원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연등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7일(토) 연등행렬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금강선원의 연등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탄허기념박물관
TANHEO MEMORIAL MUSEUM

박물관 소식

◆2016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오강만족 인생 쑥쑥'

교육기간 : 4~10월

교육시간 : 화요일 ~ 금요일 오전10 ~ 오후 12:20 / 오후2시~오후4:20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30명 내외),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 4월 27일 세곡중 길위의 인문학

· 4월 29일 대왕중 길위의 인문학

· 5월 14일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

· 5월 3일 수서중학교 길위의 인문학

· 5월 4일 숙명여중, 본오중 길위의 인문학

· 5월 19일 포이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5월 24일 세명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5월 31일 포이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4월 11일~13일 교육인력 직무교육 워크숍

· 4월 20일~22일 소장품 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 4월 26일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DB 구축 사업 설명회

· 4월 30일 재능기부 건축사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토요탐방 실시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관람료 무료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 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⑬



우리가 살아가는 때 순간마다 소리는 한시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소리이지만 아름다운 소리 불쾌한 소리, 크고 작은 수많은 종류의 그 소리에 우리는 희로애락을 담게 됩니다.

소리는 모든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올릴 때, 심지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범패를 거행할 때는 여러 종류의 악기와 노래는 물론이고, 무용까지 동원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범패의 찬불소리를 들어보면 국악의 소리법과 비슷한데 이것은 우리의 재래음악과 불교의 소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겠지요.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불교국가, 불국토를 이루는 것을 나라의 목표로 삼고 거의 천여 년 간을 생활이 불교이고, 불교가 곧 생활이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생활 곳곳에 불교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주 법계의 천신과 소통할 수 있는 소리인 염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염불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소리로만 신과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단이나 불단 앞에서 경을 읽을 때는 어떤 경을 읽는가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소리 내는가에 따라서 원하는 대상에게 뜻이 전달되어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불은 대개 다섯이나 일곱 글자로

끊어지는데 한 자를 한 박으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듯 다양한 고저장단의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영가를 설득하는 음조로 하고 시식을 할 때에는 위로하고 안 내하는 음조로 해야 합니다.

산중 절집에서 하는 새벽 도량식은 염불과 목탁으로 절 식구들을 깨우고 절 안팎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불전사물을 이용해서 의식을 거행하는데, 법고를 쳐서 축생을 제도하고, 범종소리로는 중생을, 목어는 어류를 제도하고, 공종의 고흔과 조류의 제도를 위해서는 운판을 칩니다. 이때에는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소리로 키워가다가 절정에서 다시 소리를 줄여 맺어줍니다. 반대로 저녁 예불 의식은 새벽과는 반대로 큰 소리로 시작해서 작은 소리로 맺어줍니다. 그것은 온 종일 시끄러웠던 이 세상의 소리를 거두어들인 채 조용한 세계로 돌려보낸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소리를 낼 때에도 깊이 생각해서 필요한 소리만 내야 하는데 여러분, 필요 없는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마시고 되도록 소리를 줄이고 침묵해서 그만큼 내 안을 깊게 하고, 남을 위해서 이 공간을 비워둘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然이나 上中下品에 根과 欲과 性이 殊할새
今將法彼曲成하며 從其易簡하고
그러나 상중하의 근기와 욕심과 성품이 다르기에
이제 법을 가지고 굽이굽이 이롭게 그 쉽고 간편함을 따르고

연然이나 상중하품에 上中下品에 근根과 욕欲과 성性이 수殊할새.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상중하품으로 나뉘어 근기와 욕구 성품이 다르므로, 사람마다 쌓아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 즉 마음이 달라서 같은 것을 보고도 모두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많은 경전은 각기 근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에 맞는 법을 설하여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위의 욕구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으로 바뀌서 해석해도 좋습니다.

금장법피곡성今將法彼曲成하며 중기 이간從其易簡하고. 이제 법을 가지고 저렇게 굽이굽이를 이루며 그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쫓고, 굽이 굽이 이룬다는 것은 사람들은 각자 지은 업과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룰 수 있게 쉽고 간편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나 사람은 각자 상중하품으로 나뉘어서 근기와 욕구와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법을 가지고 저들이 각기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쉽고 간편함으로 따르게 했다.

更搜精要하야 直註本經하노니
庶卽事卽心에 日益日損者矣나라.

다시 정오만을 찾아 관념으로 본경에 주를 썼으니
아마 모든 일과 마음에 날로 더하고 날로 덜어질 것이다.

강수정요更搜精要하야 직주본경直註本經하노니. 다시 원각경의 정밀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서 바로 이 경전에 주석을 다니. 정밀하다는 것은 깊이 면서도 자세한 것입니다.

서즉사즉심庶卽事卽心에 일익일손자의 日益日損者矣나라. 대부분 일에 나갈 때나 마음을 쓸 적에 날로 보탬도 있고 날로 덜어냄도 있을 것이다. 날로 보탬다는 것은 학문을 매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날로 덜어내는 것은 공부를 이룬 사람이 날로 버려서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공부를 모두 섭렵해서 최고가 된 뒤에는 공부한 것을 자시하지 말고 오히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만심이나 이기심이 커져서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이루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시 원각경의 깊고 중요한 것을 찾아서 바로 이 경전에 주석을 달았으니 대부분의 일을 할 때나 마음을 쓸 적에 날로 이익이 되고 날로 덜어내어야 할 것이다.

원각경은 화엄경에는 양보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적절한 비유를 들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경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원각경서문은 규봉스님께서 지으신 글인데, 스님께서는 원각경을 일생의 학업으로 여기시고 평생 이 경전보급에 힘쓰신 분입니다. 원각경계송 첫 장에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성불하는 법을 물으니 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답하십니다. 다시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니 착각이나 환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명이란 동을 서로 착각하는 것이고, 실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망상이며 허깨비인데, 자신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색이 없는 보석인 마니보주를 예로 드시는데, 이 마니보주를 색깔 있는 종이나 형견 앞에 놓아두고 보면 보석에 여러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마니보주 자체에 색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체를 모르고 영원히 착각하고 방황하면서 살면 중생이요 이것을 깨달으면 부처인 것입니다.

또한 금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중생이 성불하고 난 뒤에 다시 중생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으니, 이번에는 광석을 비유해서 대답하십니다. 광산의 광석에는 본래 금이 들어있지만 쓰임새가 없는 금인데, 용광로에서 잡석을 건어내면 순금이 되고 곧 성불하여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여러분도 불 속 담금질을 하듯, 투철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각경서문은 여러분이 무명을 털고 윤회에서 벗어나 성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글이 될 것입니다.

이번호로 원각경 서문을 마칩니다.
다음호 부터는 대승기신론 강설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나에게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요?

- ❖ 나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을 주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 나를 들여다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스승님이자 먼저 깨달으신 선배님이십니다.
- ❖ 나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며 내 마음의 의지처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 ❖ 나의 삶을 일깨워주시고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 ❖ 어리석은 나를 일깨워주셔서 참된 행복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 ❖ 마음의 안식처이고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무엇이든 해결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든든한 분입니다.
- ❖ 내 호흡을 조절해 주시고 평정을 찾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 ❖ 가장 완성된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내가 계속 향해 가고 싶은 모델입니다.
- ❖ 지금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며, 길입니다. 현재 내 삶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 생사해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 ❖ 진리의 등불이며, 내 삶의 원동력이자 전부입니다.
- ❖ 어지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같은 분입니다.
- ❖ 내 인생에서 항상 옆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 ❖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늘 생각나고 가고 싶은 고향 같은 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품속 같은 분입니다.
- ❖ 부처님은 제게 무량수입니다. 너무나 어렵던 시절 부처님을 만나 물을 머금은 화초처럼 다시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살아갈 의지처입니다.
- ❖ 나를 낮추게 만드는 분입니다.
- ❖ 살아가는 데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 ❖ 흔들리는 제 마음의 중심이며 어둠 속에서도 앞선 걸음으로 길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 ❖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생의 삶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크나 큰 스승님이십니다.
- ❖ 모든 생활에 있어서 배우고 싶은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 ❖ 살아가는데 있어서 궁극함과 어려움 또는 혼란스러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부처님은 삶의 스승님이십니다.
- ❖ 모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마치 심판관처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희망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 ❖ 늦게 알게 된 부처님. 앞으로의 삶을 자비와 봉사로 살아가며 공덕을 쌓고 싶습니다.
- ❖ 부처님은 나에게 최고의 엔돌핀입니다.
- ❖ 자비심을 발원하며 이타심을 갖게 해주시고 수행을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 ❖ 부처님은 내 마음의 등불입니다.
- ❖ 부처님은 내 마음의 나침판이고 등대입니다.
- ❖ 내 삶에 있어 영원히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자 스승이며 등불입니다.
- ❖ 중생을 교화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분이며 무한한 자비심을 베푸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 ❖ 부처님 모습만 봐도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편안해지고 저를 더욱 공부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 ❖ 항상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꿈을 주신 분입니다.
- ❖ 제 길을 바르고 곧게 가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 ❖ 내 속의 불성을 깨우쳐 주시고 큰 원을 세워 수행으로 스스로를 닦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 ❖ 제 인생의 등불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비심을 내게 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부처님. 제 삶을 바꾸어 놓은 분이십니다.
- ❖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흔들림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 ❖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항상 부처님 그늘에서 살고 싶습니다.
- ❖ 부처님은 '나'를 느끼게 하고 진심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며 원을 세워

워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분입니다.

❖ 부처님은 저에게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 부처님은 제가 살아가는 길을 옳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 부처님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분입니다.

❖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 금강경을 읽으며 삶의 모든 과정이 수행과 인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분입니다.

❖ 부처님은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 내가 닦아가고자 하는 최고의 대상입니다.

❖ 마음이 흔들릴 때, 약해질 때, 잘못됨을 느낄 때, 참회할 때 찾게 되는 분입니다.

❖ 반드시 만나서 헤어지지 않아야 할 존재입니다.

❖ 항상 내 가슴에 꼭 차있는 분, 제게 행복을 주신분입니다.

❖ 참된 인생의 길을 걸으신 큰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 제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올려주는 번지점프의 동아줄 같은 분입니다.

❖ 제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시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 나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하며 안정을 주는 외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 부처님은 나의 등대입니다. 매순간 선택의 연속인 삶속에서 부처님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흔들릴 때 마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입니다.

❖ 부처님은 저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 부처님은 제 삶의 길잡이입니다.

❖ 삶의 지침을 알려주시는 스승님입니다.



니다.

❖ 부처님은 제가 닦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제 삶의 앞선 발자국입니다.

❖ 부처님은 제 희망이며 길입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 생사해탈을 원합니다.

❖ 참선수행을 하면서 시점을 놓치지 않듯이 부처님께 내 초점을 맞춰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 부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 거울 같은 분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보고 싶은 부처님입니다.

❖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분, 저의 의지처입니다.

❖ 우주의 진리를 꿰뚫은 인류 최고의 스승님입니다.

❖ 일상의 탐진치에 대한 사랑의 매입니다.

❖ 제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불교에 입문하여 공부를 시작한 제41기 선하불교대학과 제28기 기초참선반을 중심으로 나에게 있어 부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부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흔쾌히 동참해주신 41기 선하불교대학, 28기 기초참선반 수강생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르시즘과 권력자

최근 유럽의 심리학자 세 명이 ‘나르시즘은 과연 극도의 자긍심인가?’라는 논문을 공저해서 발표한 뒤로 다시 나르시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때마침 공화당 선두 후보인 트럼프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거침없이 보이는 전형적인 나르시즘 ‘증세’는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심리학자들에게 좋은 토론 재료가 되고 있다.

나르시즘은 물에 비친 자기의 미모에 반해서 물속만 들여다보다가 죽은 그리스신화의 인물 나르시스에서 온 말이라서 ‘자기도취증’으로 번역되고, 심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성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고 보며 나르시즘을 정상적 성격의 의미 있는 한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자들(정신분석학자 Heinz Kohut 박사 등)도 있다.

그렇다면 비교적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나르시즘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일까? 일단, 나르시즘의 어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증상으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자부심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의 “길고 예쁜 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용모는 수려하지”라는 발언) 그리고 무대에 서거나 남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즐길 뿐 아니라 늘 갈증을 느낀다. 이 두 가지는 남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흔한 증상이고 그나마 남한테 주는 피해가 적은 증

상에 속한다.

나르시즘의 핵심을 이루며 가장 타인에게 큰 해를 입히는 증상은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과도한 우월감일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유능한 사업가라서 절대로 지금처럼 중국인들 상대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지... 멕시코인들의 밀입국 문제도 큰 벽을 지어서 해결할 뿐 아니라 멕시코로 하여금 벽 짓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만들 테니까”라는 트럼프의 호언장담. 누구나 가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만족하고 우쭐한 기분에도 잠겨볼 수 있겠지만, 나르시스트는 우월감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하는 일을 ‘당연히’ 거들어야 하고, 자기를 알아서 차별히 모셔야 될 뿐 아니라, 주제넘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서도 안 된다. 나르시스트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상황은 누군가가 자기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칭찬지도 않은 조언을 함으로써 감히 자기의 권위에 도전할 때이다.

“나르시즘은 과연 극도의 자긍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극도의 우월감에 뿌리를 둔, 자기와 남은 종적(縱的) 관계에 있다는 믿음이 바로 나르시즘과 자긍심을 구별하는 시금석(試金石) 이라고 한다. 자긍심은 자신뿐 아니라 남의 역량이나 인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횡적(橫的)인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미

덕이나, 나르시즘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력이나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 사이에는 트럼프 같은 나르시스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게 인성, 임상심리학자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추앙된다는 점이다.

공화당 중도파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나르시스트라고 낙인 찍힌 트럼프가 어떻게 공화당 대통령 선두 후보까지 되었는지 미스테리로 보일 수 있다. 역설 같지만 트럼프의 인기는 바로 그가 나르시스트라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저교육층, 저소득층의 백인남자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오래된 경기침체로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기들과 비슷한 배경에서 성장해서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후보들을 모두 제쳐두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나르시스트에 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트럼프는 이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전지전능한’ 부모의 이미지를 투사(投射)해줌으로써 이들을 무력감에서 잠시나마 해방시켜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 특히 우리 마음을 강렬하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우리 성격의 조명 받지 않은 한면을 거울처럼 환하게 비쳐주는 역할을 한다.

글 / 우태욱(불명:청량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Millersville주립대 심리학과 교수>

화엄사 홍매화

봄계

더 봄계

각황전 단청 위로

부처님께 더 가까이

하늘가에 피고 싶은 홍매화

천상의 향내 아직도 옷자락에 감기네

지리산 기슭의 바람결이

한적한 절 마당을 비질하는 오후

단청 아래 풍경 소리 더없는 법문이니

조사의 냇이 깃든 오층 석탑에 합장하네

봄계

그림자마저 봄계

꽃잎 꼭 다물고 참선에 든 홍매화

뒷 숲 대나무들 소곤대며

햇살을 흔드는 오후

염불 삼매로 흐르는 개울가에

화엄의 봄이 오네 매화 꽃위로 날아오네

부처님 향해 우러러 달려오네

남이시여

남이시여

통째로 정각 이뤄 허공까지 불국토되어도

이 중생의 마음에만 먹물을 들이시고

하늘가의 홍매화일랑 영영 봄계 하소서

봄 산은 첩첩하고 나 오로지 합장하네

글.사진 / 정도원(송파선등 법장)



내 몸이 반한 병원

한성한방병원

02-543-7533 | www.hansungmk.com



공동관 公同觀

어느 아침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 다. ‘○월 ○일 정오에 모두 5분 동안 마음을 내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엉뚱하기도 하지만 유쾌한 말씀씨로 주변을 기분 좋게 해주던 동기 거사 한 분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같은 날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지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신심이 유난히 깊은 포교사 동기입니다.

그녀는 무남독녀로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남편을 따라 지방에 자리를 잡아 살고 있습니다. 조신하고 얌전한 외모와 다르게 그녀의 신행은 적극적이고 과감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시댁 식구 사이에서 곳곳하게 불교 공부를 하며 신량을 설득해 세 아이 중 하나를 종립학교에 보내기도 했지요. 포교사 공부를 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씩 왕복 대여섯 시간 넘는 길을 운전해 서울을 오가면서도 그녀는 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간결하게 살며 봉사하는 일이 생전의 사명인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지역 대학교를 돌며 불교학생회 현황을 조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쇠락하는 불교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대학교에 가서는 학생회장을 만나 설득한 끝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유지하는

독심도 보였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환희심이 나고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에 감사하게 되었지요. 그녀를 보면서 나는 나의 기도와 신행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요즘 남편과 세 아이가 있는 집을 떠나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친정아버지 병 수발을 위해서지요. 연로하신 친정어머니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일도 오롯이 그녀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게을리 할 그녀가 아니지요.

단체 문자를 받은 날은 그녀가 아버지를 위해 절에서 큰 기도를 올리기로 정한 날이었다는군요. 그 소식을 들은 부지런한 동기 거사가 문자로 도반들을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날 그 시간에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겠지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도반은 이것을 ‘공동관’이라 부르더군요. 실제 불가에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속한 사찰에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을 모시는 형제이니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던 그 도반은 또 얼마나 멋진지요. 형제라는 말에는 도반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요. 그날 우리는 각각 다른 곳에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녀는 아버지가 한 달 후쯤엔 증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거라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늘 기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녀의 공덕이었지만 혹시 공동관으로 모아진 힘이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전달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마음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길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눈길 가는 곳 어디 한 군데 꽃대궐 아닌 곳이 없는 봄입니다. 먼 축제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도서관 옆길을 지날 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온통 꽃, 꽃 천지입니다. 한없는 자연의 선물에 행복한 것도 잠시, 바람이라도 불어 꽃잎 몇 개 흩날리면 아까운 마음에 발길이 머뭇거려집니다.

시성詩聖 두보가 그랬던 것처럼 슬픔이 밀려옵니다. 자꾸만 짧아지는 봄, 모두 함께 공동관이라도 하여 조금만 더 붙잡아 두고 싶은 이 마음은 욕심이었지요.

글 / 전현서(국제포교사)

선방 소식

성인 참선반

매월 첫 주 진행되는 참선집중정진일(월요일, 화요일)은 참선반 전원이 참석하여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5월 참선 집중정진일
5/2(월)~5/3(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청소년 참선반

#2 씨앗키우기 명상-자존감키우기
어디선가 바람결에 씨앗 하나가 날아와 내 앞에 떨어졌다고 상상하여 정성스럽게 흙에 묻고 햇빛과 물을 주고 싹을 틔운다. 작은 잎이 돋아나고 잎이 점점 크고 줄기가 뻗어 자라 무성해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본다.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서 어떤 꽃을 피우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주변이 어떤 모습인지 다른 나무나 풀들도 있는지 살펴보고 나무가 다시 싹을 피우고 결국 나이 들어 나무의 생을 마감하는 일생을 지켜보도록 한 후 떠올랐던 나무를 그림으로 그린다. 처음에 의도했던 나무와 실제 명상에서 키웠던 나무와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본다.



2016 길위의 인문학 ‘오감만족 인생 쑥쑥’

학생들의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집단미술심리체험활동을 통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 ▶ 기간 : 2016년 3월 2일 ~ 10월 31일
- ▶ 시간 :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3시 (2시간 과정)

행복에너지 만들기

수서경찰서와 함께 하는 청소년 미술 심리치료 교육프로그램

- ▶ 기간 : 2016년 4월 2일 ~ 4월 30일(매주 토요일)
- ▶ 시간 :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한비자 특강 매주(일)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 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월) 오후 14시 3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어린이명상교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과정 6월4일(토)~12월10일(토) 오후 1시

문화특강 안내

한문반(도덕경 특강) 매주(수, 금) 오후 1시 30분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5/10(화) 수서경찰서 법문 오후 2시

선원 일정 (5. 1 ~ 5. 30)

5/ 2(월) 21일 기도 입재
선하불교대 10:30
기초참선 14:30
참선반집중훈련 10시~16시
3(화) 참선반집중훈련 10시~16시
4(수) 수요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5(목) 어린이날
6(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7(토) 초하루기도 9:20
제등행렬
8(일) 일요법회 한비자특강 10:30
9(월) 선하불교대 10:30

기초참선 14:30
10(화) 부처님오신날 3일 특강입재
(화엄경개요) 10:30
11(수) 부처님오신날 3일 특강
(화엄경개요)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12(목) 부처님오신날 3일 특강회향
(화엄경개요) 10:30
스승의날 기념식
13(금) 대승기신론 휴강
도덕경 휴강
14(토)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10:30 / 점등법회 19:00)
15(일) 한비자특강 휴강
16(월) 선하불교대 10:30
기초참선 14:30
18(수) 수요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만수결 1600일 회향
19(목) 만수결 1700일 입재
20(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21(토) 보름기도 9:20
하안거결제일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22(일) 21일기도회향 9:20
일요법회 한비자특강 10:30
23(월) 선하불교대 졸업식 10:30
기초참선 14:30
24(화) 지장재일 9:20
25(수) 수요법회 육조단경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27(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0:30
도덕경 강의(BBS방송녹화) 13:30
28(토)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14:00
금강경독송집중정진 19:00~22:00
29(일) 일요법회 한비자특강 10:30
30(월) 탄허대종사 열반재

혜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 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 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아마천공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혜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 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 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 15장

New 맹자 진심장(혜거스님).....26장

☎ 문의 : 교무팀 02-445-8484
☎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금강회보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선원의 소식지인 금강회보는 금강선원의 대내외 소식 및 혜거 큰스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장르의 글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신문입니다. 신행생활 속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이나 순수 창작물인 다양한 소재의 글, 시, 그림, 사진 등을 금강선원 신문부로 보내주세요. 금강회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신문부 e-mail
sinmoon445@hanmail.net

금강회보에 광고하세요

금강회보는 월 1회 발행되는 금강선원의 신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회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됩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광고 협찬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금강회보 법보시 받습니다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시 금 | 천화당한의원 공양간 최옥영
보 시 물 | 장기팔 동명한의원 서상윤 청심
대 중 공 양 | 장동권 항적화 장우영 백미현 무주상 선혜심 진묘행 최 승철 김남희 이의자 조남희 박상희 안서연 무주상 우담화 김종영 박영자 이준희 조연희
초파일대중공양 | 무주상 편집실 압구정선등 이규홍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 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화 엄 경 설 판 동 참

1-1381-1390 법연심

구 좌 동 참

1-13865 정진구
1-13866 문상익
1-13867 문주영
1-13868 이종혁

1-1369 최은서
1-1370 박소형
1-1371 조남주
1-1372 서대일
1-1373 서정익
1-1374 하경식
1-1375 김완규
1-1376 윤유탉
1-1377 김명순

1-1378 손지연
1-1379 반야행
1-1380 정다운
1-1391 최정태
1-1392 박상임
1-1393 최우진
1-1394 허효정
1-1395 최윤아
1-1396 최원우

1-1397 김석진
1-1398 최은정
1-1399 김시연
1-1340 김리트(대명)
1-1341 경주선



* 본 연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상전문지도사 자격 수여 단체기관 과정임

實參

2016 금강명상지도자 자·격·연·수

제4기 연수생 모집

개강일 지도자2급(8주) 2016년 6월 04일 토요일 13시
지도자1급(8주) 2016년 7월 30일 토요일 13시
전문가과정(8주)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13시

접 수 기 간

접 수 방 법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ipc445@hanmail.net

* 연수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사항
금강명상지도자 다음카페,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금강선원 다음카페

신 청 자 격

만 30~55세 (기초 한글문서작업 및 인터넷 사용 가능한 사람)

개 강 일

지도자 2급(8주) 2016년 6월 04일 토요일 13시

지도자 1급(8주) 2016년 7월 30일 토요일 13시

전문가과정(8주)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13시

지 도 법 사

혜거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심성개발위원회위원장, 금강선원 선원장,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동 참 연 수 비

금강명상지도자2급	50만원
금강명상지도자2급	90만원
금강명상지도자1급	
금강명상지도자2급	120만원
금강명상지도자1급	
금강명상지도 전문가 과정	

* 각과정 별도 등록비 각 50만원

등 록 방 법

1. 연수참가신청서 제출
2. 연수비 입금: 신한(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100-029-642342

교 육 일 정

자격별	기간	일정	시간
금강명상지도자2급	8주	6월 04일~ 7월 23일	토 13시~18시
금강명상지도자1급	8주	7월 30일~ 9월 25일 · 9월 17일 추석연휴로 쉬 · 9월 24일(토) 강의없음 · 9월 25일(일) 진행	토 13시~18시
전문가 과정	8주	· 10월 22일~12월 10일 · 10월 29,30일 워크샵 · 12월 17일 자격증 수여식	토 13시~18시



대한불교조계종 인성교육개발·인증위원회 위원장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장

혜 거